

연기적 사유 '상호부조'로 세계 변혁 꿈꾸다

불교로 읽는 古典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붓다와 닮은 아나키스트

피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상호부조론(Mutual Aid)>은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사상이나 사회사상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그리 낯선 이름이 아니다. 크로포트킨의 이름과 저서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많은 아나키스트 독립 운동가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서적과 팸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졌다.

크로포트킨은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한국에는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로서 우당 이회영, 단재 신채호, 유자명, 우관 이경규 등이 있다. 이렇게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상호부조론은 일제 강점기에 이미 소개되었고, 그 계기는 인문학적인 관심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비전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재 번역본은 1983년 출판된 故 하기락 경북대 교수(열렬한 아나키즘 운동가)가 번역한 것과 2006년 출판된 <세계를 뒤엎은 상호부조론>이 있다.

필자가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상호부조론>을 접한 것은 30대 초반의 대학원 시절이었다. 그의 사상과 상호부조론을 읽으면서 어찌 이리 붓다의 사상과 닮았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지 크로포트킨의 생애마저 붓다의 일생과 유사하게 보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크로포트킨은 러시아에서 1842년 굴지의 귀족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스위스와 영국에서 40여년의 망명생활을 하는 등 파란만장의 일생을 살았다.

그는 아나키스트 혁명가로서, 지리학자(생물학자)로서 다양한 저서를 출판했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상호부조론>이다. 그의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행의 정복>, <전쟁·공정·작업장> 등이 있다. 크로포트킨은 말년에 온 정열을 다해 <윤리학>의 저술에 전념하다가 1921년 2월 6일에 별세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모스크바의 거리에 5마일의 검은 깃발(아나키즘 정신의 상징)을 든 시민행렬이 그의 상여 뒤를 따랐다. 그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붉은 공산당 정권에 대한 최후의 항의 행진이었

다. 크로포트킨은 오스카 와일드 등 많은 지인들로부터 오늘날 간디나 슈바이처에 비견되는 세속의 성자로 불렸다.

노벨 문학상을 탄 영국의 버나드 쇼(Bernard Shaw)는 “크로포트킨은 성자라 이를 만큼 다정하고 그의 복스러운 붉은 수염과 인자스러운 표정은 디렉터블 산(총로 역정에 나오는 아름다운 산)의 양치기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매우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매우 뛰어난 이론가였다. 또한 아나키즘이 테러나 파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온건한 이상주의적 사회변혁의 이론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크로포트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부조, 생명체 생존 양식

1914년 출판된 <상호부조론>은 결코 책상머리에서 쓰인 책이 아니다. 크로포트킨은 서론에서 이 책의 탄생 과정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부터 동

간디에 비견되는 '세속의 성자' 동북아 아나키즘 형성에 영향

인간의 역사는 '상생' 서 비롯 '상호부조' 통한 협력사회 주장 '自他不二' 연기사상과 맞닿아

시베리아와 북만주를 여행하면서 열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가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리고 탐사장소를 옮겨 다시 확인하는 긴 과정을 통해 나온 책이다. 그는 어떤 교조의 선전자가 아니라 과학과 진리의 탐구자라는 자세를 굳건히 견지한 사람이다. 치열한 아나키스트 혁명가인 그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경이심이 든다.

이 책은 생물학(지리학)의 범위를 넘어 인간 삶의 양식과 비전에 많은 지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연구과정을 담은 긴 '서론'과 '동물들 간의 상호부조', '야만인들 간의 상호부조', '미개인들 간의 상호부조', '중세도시의 상호부조', '우리들 자신의 상호부조'로 각각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장을 마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상호부조의 다양한 사례를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동물들 간의 상호부조'에서 개별 동물들 간의 투쟁을 최소화한 줄이고 상호부

조의 실천을 최고도로 발달시킨 종(種)이 가장 개체수가 많고, 번영하고, 미래가 보장된 종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들 간의 상호부조'에서는 석기 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호부조의 긴 발자취를 살펴면서 상호부조가 인간의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당시에 이룩한 급속한 산업 혁명과 진보도 당시에 품미되었던 경쟁과 개인주의의 승리라고 보는 견해를 반대하면서 인간 간의 상호부조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상호부조의 개념은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 철학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윤리적 원칙의 기반이기도 하다. 그는 윤리와 도덕은 인간의 본능적 사회성으로부터 생성되었으며 진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인간의 본능적 사회성이란 사람들 간의 행복의 긴밀한 의존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자기 자신의 그것과 동등하다고 느끼게 유도하는 정의와 평등의식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지인 것이다.

<상호부조론>에 나타난 사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류의 생존은 바로 상호부조 내지 상호협력에 절대적으로 힘입는 바가 크고, 따라서 갈등보다는 협조가 역사 과정이나 그 전개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크로포트킨의 주장



피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사진. 프랑스의 만화가이자 사진작가인 펠릭스 나다르가 촬영했다. 아나키즘 운동가였던 크로포트킨의 중심 철학은 '상호부조'에 있다. "만물은 서로를 돕는다"는 것을 골자한 '상호부조'는 불교의 연기론과 맞닿는다.

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주장하는 홉스(Hobbes)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유행되고 있는 적자생존의 진화론에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상호부조의 정신이 없다면 약탈을 일삼는 동물이나 노예를 거느리는 개미가 멸망하듯이 인간도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상호부조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윤리학>이라는 대저에 몰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러한 큰 바람은 안타깝게도 완성되지 못하고 그는 지구별을 떠난다.

상호부조는 연기적 사유서 비롯

필자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읽으면서 붓다의 연기법과 자비사상의 체취를 흠뻑 느낀다. 즉 상호부조론을 붓다의 연기론의 변용이고 화엄사상의 한 지류라고 생각된다. 붓다는 일체 존재방식을 연기의 원리로 풀어 나간다. '연기'라는 말은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뜻이다. 일체의 존재는 모두가 그럴만한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인드라마의 구슬 속에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 용어로 사용해보면, 모든 존재는 '의존적 상호발생(dependent co-arising)'을 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연결된 덩어리이며 여기에 타자는 없다. 나와 타자는 하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서로 어 깨동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의 자비사상이 나온다.

필자는 크로포트킨이 상호부조의 가치를 통해 <윤리학> 저서를 완성했다면 이를 '상호 윤리(Mutual Ethics)'라 호칭하고 싶다. 상호윤리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상호의존적 관계로 보고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와 그 경험을 해석하는 코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상호윤리에서는 규범이 이성의 명령이나 어떤 절대적 존재

의 승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조건이 되는 관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호윤리의 규범과 가치들은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변화 사이에 깊은 의존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이에 상호윤리는 다른 존재에 대한 깊은 배려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윤리는 바로 자비 정신의 한 실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나키즘과 자비 실천

현대사회는 종래의 도덕적 규범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의 저명한 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이러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자비 윤리의 정립과 실천을 불교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붓다가 제시한 지혜의 목적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열반의 경지는 모든 존재가 행복을 누리며, 정토 즉 바른 사회에서 사는 것이다. 자비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는 일찍이 아나키즘을 연구하면서 붓다 사상이 현세적인 정치이념으로 현신한다면 상당 부분이 아나키즘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다. 아나키즘은 자연론적 정의관, 자주적 개인, 공동체 지향, 권위에의 저항 등을 기본 가치로 내세우면서 자유공동체 구현을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다.

21세기 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아나키즘적 사유의 틀은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아나키즘은 정치 이념이라기 보다는 생활양식과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상호부조론은 붓다의 자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싶다.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큰 그릇 자랑만 하고 강물을 뿜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국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자비 실천에 대한 것은 미흡해 보인다. 불교가 현대사회와 인간 삶의 현장에서 생동감 있고 효율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 실천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열반의 세계로 가는 두 바퀴이다. 상구보리를 통해 지극한 행복을 얻고 하화중생을 통해 바른 정도를 만드는 것이다. 상호부조의 가치를 내세우고 행복하고 바른 정도를 구현하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온 크로포트킨은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크로포트킨은 붓다의 충실한 제자임에 틀림없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품질을 여색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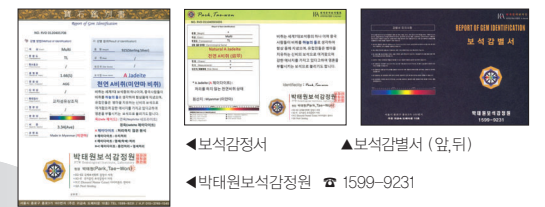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 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할,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를 83.6% ▶ 녹농균 감소를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